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68호 【루계 제25411호】 주체105(2016)년 9월 24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동강주사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동강주사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서홍찬동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단위와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평양시교외에 자리잡고있는 대동강주사기공장은 각종 주사기들과 점적기구들을 생산하는 능력이 큰 의료기구생산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지난 기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해마다 공장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귀중한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며 대동강주사기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주사기공장은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밑에 적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과 혹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일떠섰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00년 12월 인민군군인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새로 건설된 공장을 찾으시고 질좋은 주사기와 점적기구들이 생산되는것을 보아주시며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못내 기뻐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귀전에 울리는것만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주사기공장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높은 생산성과로 한평생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해 헌신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지령실, 사출기실, 조립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다음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주사기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뿐만아니라 제품의 질을 철저히 담보하고 주사기의 다종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주사기공장에서 주사기생산량을 계통적으로 늘이고 여러가지 용도에 쓰이는 각이한 규격의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하자면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대동강주사기공장을 우리 나라 의료기구공장의 본보기, 표준이 될수 있게 현대화하자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경영활동의 정보화, 과학화를 위한 통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하며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의 흐름선화,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함으로써 공장을 세계적수준의 주사기공장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대동강주사기공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자강력제일주의기치, 국산화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해당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현대적인 기술공정들을 꾸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의료봉사수준은 치료예방사업의 기본수단인 의료기구를 어떻게 보장해주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질좋은 주사기와 점적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충분히 보내줄수 있게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신과학기술성과에 기초한 현대적인 의료기구생산기지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는것을 비롯하여 주체보건, 인민보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음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주사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감으로써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대동강주사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일터에 몸소 찾아오시여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하늘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열화와 같은 흠모의 정을 담아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삼지연군에 정중히 모시였다

위대한 선군태양을 천세만세 받들어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불타는 충정에 의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삼지연군에 정중히 모셔졌다.

우리 당의 영원한 수반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유서깊은 성지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간절한 소망이 실현된 력사적사변이며 특대경사이다.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만고의 항쟁사가 깃들어있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신 영광의 땅에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모심으로써 주체혁명의 억센 뿌리가 내리고 천만군민의 정신적기둥인 태양의 성지는 누리에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되였다.

삼지연군에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이 23일에 진행되였다.

제막식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제막식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제막식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과 《절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글발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량옆에는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으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다.

제막식에는 황병서동지, 최룡해동지, 김기남동지, 박봉주동지와 고인호 내각부총리, 리상원 량강도당위원회 위원장, 리성국 량강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도와 삼지연군, 관계부문 일군들,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기여한 단위 일군들, 공로자들, 돌격대원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인민군장병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제막식은 시작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을 당과 군대, 삼지연군의 책임일군들이 하였다.

제막포가 벗겨지자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찬연히 빛을 뿌리였다.

하늘땅을 진감하며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백두대지의 하늘가를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삼지연군인민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이어 량강도와 삼지연군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무대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여 주체혁명위업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으시고 한평생 빨찌산식강행군으로 선군혁명의 천만리를 종횡무진하시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경모하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삼지연군에 정중히 모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태양같이 환히 웃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는 우리모두는 조국과 혁명, 인류앞에 세기를 두고 영원불멸할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한평생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연설자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혁명생애의 전기간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우리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군혁명사상을 정립체계화하시고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시여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우리 혁명을 자주의 항로를 따라 곧바로 전진시켜오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수령의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지니시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나라를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조국의 무궁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생애의 전기간 삼지연군에 수십차례나 불멸의 령도자욱을 새기시면서 군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일찌기 백두산에로의 첫 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1970년대와 80년대에 삼지연대기념비를 비롯한 혁명전적지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신데 이어 2000년대에 들어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완벽하게 꾸리도록 령도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9(2000)년 11월 삼지연군 중흥농장의 로전에까지 찾아오시여 대흥단군과 함께 삼지연군을 나라의 주요감자명산지로 일떠세울 확고한 전망을 열어주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군안의 여러곳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지방공업과 인민생활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인민들이 쓰고살 훌륭한 문화주택들을 일떠세워주시고도 몸소 살림집들을 찾으시여 온돌도 짚어보시고 인민들이 리용할 국수집과 문화후생시설들에 들리시여 국수맛과 운영방법을 헤아려주시였으며 이름없는 농촌학교 교원의 수업도 참관하시고 군안의 예술소조원들이 준비한 소박한 공연까지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모두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장군님을 천만년 높이 모시려는 우리 인민들의 불같은 념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2(2013)년 11월 삼지연군안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삼지연군을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답게 더욱 훌륭히 꾸리도록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소망을 헤아리시여 삼지연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해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량강도를 비롯한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갈 불타는 신념과 의지를 안고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백옥같은 충정을 바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에 최상의 수준에서 정중히 모시게 된것은 이 땅우에 력사에 전무후무한 수령영생위업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량강도인민들과 온 나라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을 담아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과업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높이 모신 영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선군조선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신념의 성벽을 더욱 억세게 쌓고 원수님을 절사옹위하며 당중앙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당에서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철저하게 집행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본보기군, 표준군, 모범군으로 특색있게 꾸리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섬으로써 백두산기슭에서부터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막식은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대한 해설을 듣고 경건한 마음으로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각 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일에 즈음하여 하쉐미트요르단왕국 인민과 정부의 이름으로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게 됨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귀국과 귀국인민에게 끊임없는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하쉐미트요르단왕국 국왕

아 브 둘 라 흐 2 세

2016년 9월 6일 암 만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각 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일인 귀국의 민족적명절에 즈음하여 나자신과 아제르바이잔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맞게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뜻깊은 날에 나는 당신께서 행복하실것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통령

일 함 알 리 예 브

2016년 9월 6일 바 꾸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각 하

위원장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을 맞으며 몽고인민과 정부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행복과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우리 인민들의 호상복리에 이바지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나의 의지를 다시한번 확언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몽고공화국 대통령

데니 싸쑤 느게쏘

2016년 9월 7일 브라자빌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 삼가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

세계의 진보적영화인들과 영웅적이고 헌신적인 평양시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열다섯번째로 열린 평양국제영화축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우리들은 존경하는 원수각하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이 전지를 삼가 올리게 되는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여기게 됩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마련하여주신 평양국제영화축전에는 이번에도 세계영화인들이 창작한 우수한 영화들이 출품되였으며 축전의 자랑스러운 력사에 또다시 뜻깊은 년륜이 아로새겨졌습니다.

존경하는 원수각하의 직접적인 관심속에 아름다운 평양에서 진행된 제15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바라는 여러 나라 영화인들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더욱 두터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많은 나라들의 민족영화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습니다.

우리들은 귀국의 정부와 축전조직위원회, 친근한 평양시민들의 진심어린 성의와 노력속에 이번 축전이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과 조국통일위업,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한 투쟁을 이끄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축전사업을 세심히 보살펴주신 존경하는 원수각하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평양에서의 체류기간은 비록 짧았어도 우리들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세기적인 비약을 일으키며 세계를 놀래우는 귀국의 경이적인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의 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깊이 절감하게 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수각하께서 제시기에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현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조선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우리들은 영화예술의 거대한 힘으로 온갖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인류공동의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며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을 반영한 훌륭한 영화들을 창작하여 평양국제영화축전에 적극 참가할것입니다.

귀국의 륭성번영과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조선영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존경하는 원수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원수각하께 다시한번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제15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일동

2016년 9월 23일 평 양

일 심 단 결 의 위 력 으 로 승 리 떨 치 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군대와 인민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드세차게 밀려오는 피해복구전투의 화폭들은 조선의 무진막강한 일심단결의 위력을 뚜렷이 과시하고있다.

일심단결, 이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의 모습, 조선의 긍지, 조선의 힘이다.

조선혁명은 절세위인들의 령도밑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억경을 짓부시고 기적적승리를 펼쳐온 영광스러운 혁명이다.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에서도 우리 군민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승리하였고 준엄한 3년간의 반미대전에서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미제와 그 련합세력을 격멸하고 기적적승리를 떨쳤다.

오늘도 일심단결의 화폭들이 련면히 어려와 천만의 심금을 무한히 격동시킨다.

전화의 나날 싸우는 전선의 인민군 군인들을 찾아 전선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림진강철교부근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그이의 신변이 념려되여 일군들은 간절히 만류의 말씀을 드리였다.

하긴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선에서는 이 시각에도 전투원들이 피흘리며 적들과 싸우고있는데 무엇을 주저하겠는가, 전선에 있는 동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있다고 하시며 달도 없는 야밤에 위험천만한 림진강철교를 한치한치 건느시였다. 하늘에서는 적기가 돌아치고 사방에서 포탄과 폭탄이 터지는 그 위험천만한 사선의 고비를 넘으시여 전선의 인민군용사들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친어버이사랑을 부어주시고 무적필승의 담력과 용맹을 안겨주시였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화의 나날에 어버이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군민이 있었고 천만군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수령님께서 계시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이렇게 이룩되였다.

전후복구건설의 나날 이 땅에 펼쳐진 일심단결의 화폭은 또 얼마나 우리 가슴 울리는것인가.

혁명생애의 전기간 언제나 그러하시였듯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만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과 함께 모진 시련을 뚫고 복구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높이 떨치도록 하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을 찾아가시는 곳마다에서 절절히 울린 인민의 목소리 오늘도 대지에 의미깊이 메아리친다.

《수상님! 얼굴이 많이 축간것 같은데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종과놈들이 인민생활이 어쩌고어쩌고 떠들어도 이제는 다 잘살게 되였으니 일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종과놈들이 이기겠습니까? 념려마십시오. 우리는 수상님을 지지합니다.》

해성할머니의 소박한 아뢰임은 정녕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나 평화로운 나날에나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력사의 시련을 돌고해쳐온 우리 인민의 신념의 힘찬 선언이였다.

일심단결로 그토록 굳건한 성새를 이루었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당을 따라 천만들의 모진 책동을 짓부시며 이 땅우에 세기적변혁과 승리를 그토록 력력히 아로새길수 있었다.

성스러운 력사, 일심단결의 력사는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혁명의 세대와 년대를 이어 꿋꿋이 이어져 혁명사를 빛내이였다.

고난과 시련은 단결의 위력을 검증한다.

엄혹한 시련이 중중첩첩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도 이 땅에 감동깊이 펼쳐진것은 바로 일심단결의 화폭들이다.

언제인가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또다시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은 뜨거우시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난과도도 애오라지 장군님만을 믿고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헤치며 눈부신 전변의 화폭을 자랑높이 펼친 자강도인민들의 모습이 더욱 미덥게 어려와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이 키워낸 훌륭한 인민, 어려울 때일수록 패배와 락심을 모르며 강한 의지와 신념에 넘쳐 살며 투쟁하는 인민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철의 의지를 안고 령도자를 끝없이 흠모하며 따르는 이런 인민들의 뜨거운 감정은 억만금의 돈으로도 살수 없는것이다. …

언제나 변함없이 당만을 믿고 당을 따라 력사의 시련을 헤쳐온 우리 인민,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결단코 나서신 강행군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편단심 당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충정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시였다.

참으로 훌륭한 인민,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시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들메를 더욱 조이시고 불철주야 강행군길을 쉬임없이 헤치시였다.

인민들이 당을 하늘처럼 믿고있는데 우리는 인민을 하늘처럼 믿어야 한다! 인민은 당을 믿고 당은 인민을 믿는 바로 여기에 철통같이 뭉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탐보되여있다!

선군혁명천만리길에 절절히 울린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오늘도 이 땅우에 메아리친다.

한평생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길을 주름잡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 그토록 뜨겁게 간직된것은 일편단심 당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군민의 순결한 모습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시하시였다.

전후 우리 혁명이 시련을 겪고있을 때 해성할머니가 수령님께 신심과 힘을 주었다면 오늘은 수많은 해성할머니가 나에게 신심과 힘을 주고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이 노래 《기다렸습니다》를 많이 부르고있는데 그 노래도 나에게 큰 힘을 주고있다. 그 노래에는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당의 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마음이 반영되여있다. 우리 인민은 참으로 좋은 인민이다. 나는 우리 인민이 부르는 노래 《기다렸습니다》를 들을 때마다 인민의 아들로서 나라와 민족앞에 지닌 책임을 더욱 깊이 자각하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할 굳은 각오를 가지군 한다. …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이렇듯 언제나 인민이 있었다.

천만군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장군님께서 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여 조선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은 력사의 시련속에서도 더욱더 굳건히 다져지였다.

조선혁명의 일심단결의 력사는 또 한분의 절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세대와 년대를 이어 천백배로 더욱 굳건해지고있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떨치기 위한 투쟁의 전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세상에 없는 복구기적을 창조하여 북변령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더 큰 행복, 누구나 부러워하는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며 피해복구전투를 정력적으로 이끄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대대로 수령복, 장군복, 위인복을 누리는 조선혁명은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력사의 모진 시련과 억경을 뚫고 기적적승리만을 떨친 긍지높은 혁명이다.

지금이야말로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고 당에서 벽을 울리면 강산을 울리며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질,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금 온 세상에 과시하여야 할 때이다.

우리 당이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지난해 라선땅의 전화위복의 기적이 보여준것처럼 북부피해복구전투를 통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더욱 굳건해질것이며 우리 혁명은 새로운 고조기에 들어서게 될것이다.

그렇다.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고 력사를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력사로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고 그이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철옹성같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대부대가 있기에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도 반드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전고가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김 인 선

인민을 위하는 우리 군대

인민의 꿈과 행복은 어떻게 꽃펴나는가.

조국앞에 닥친 준엄한 시련은 어떻게 헤쳐졌던가.

위대한 당이 펼친 설계도따라 인민군장병들이 얼어간 길우에 꽃펴났음을, 당의 부름따라 군대와 인민이 하나가 되여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로 헤쳐왔음을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에서 되새겨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섬기는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인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인민을 위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 군민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주동이 되여야 합니다.》

세해전 9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은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3호동과 15호동의 어려살림집들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더없는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과학자들이 맨몸으로 들어와 보금자리를 펼수 있게 되였으며 마음을 붙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고 친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은 참으로 뜨거우시였다.

집집의 무뚜막마다에서 보게 되는 성냥, 무동력보이라가 설치된 베란다들에 마련되여있는 구멍탄과 불쏘시개감들, 방비며 밀대, 휴지통, 위생종이, 바께쯔, 물바가지를 비롯하여 우리 과학자들이 생활하는데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세부적인 필수품들까지 다 마련되여있지 않는가.

새 살림집의 주인들의 얼굴에 피여오를 기쁨의 미소를 그려보며 뜨거운 진정을 바치였을 우리 군인들의 그 마음을 소중히 안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만이 발휘할수 있는 훌륭한 소행이라고.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새집들이의 그날 새 집의 주인들도 우리 군인들의 진정을 눈물겹게 새기리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우리 군인들의 뜨거운 마음이 어찌 그때뿐이랴.

뜨락에 감풍년이 들 때 원아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곶감을 만들어 보내주던 못 잊을 모습들도, 아이들에게 먹일 공우유생산이 중단될세라 제손으로 심어 수확한 콩을 차량마다 넘치게 싣고 한달음에 달려오던 고마운 얼굴들도, 인민의 성의가 와닿을 때마다 우리에겐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된다고, 대신 노래를 불러달라고 사양하며 웃음짓던 사람들도 우리 군인들이였다.

허리치는 강물속에서 감탕과 싸우며 맑은 물이 흐르게 해준 인민의 복무자들도, 가물에 탄 논밭을 땀으로 적시며 오곡을 자래운 사람들도, 큰물로 탄광과 철도, 거리와 마을이 혹심하게 파괴되였을 때에 그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기적창조의 주인공들도 다름아닌 우리 군대였다.

정녕 이 땅우에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병사의 숨결이 높뛸 때, 인민을 위하는 군대의 발걸음소리가 높아갈 때 군민대단결은 더욱 굳건해진다.

인민은 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을 자양분으로 하여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꽃펴나게 될 군민대단결의 자랑스러운 화폭을.

본사기자 리 금 분

박 봉 주 총 리

남포항, 원산항을 현지료해

박봉주내각총리가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필요한 자재수송전투로 들끓고있는 남포항과 원산항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북부피해복구전선의 승리를 보장하는데서 자재수송이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한 남포항과 원산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한의 세멘트라도 더 빨리 보내주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총리는 남포항과 원산항의 항만시설들과 짐배 등을 돌아보면서 세멘트상선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협의회를 가지였다.

협의회들에서는 짐배들의 안전항행을 철저히 보장하고 상선 및 하선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또한 현관단위들에서 북부피해복구자재수송에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며 짐배선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한편 총리는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더욱 짜고들어 북부피해복구자재수송량을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조선중앙통신】

박봉주총리 남포항을 현지료해

북부전선으로 세멘트수송선 출항

원산항에서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수천t의 세멘트를 실은 배가 20일 출항의 배고동을 울리며 떠나갔다.

당의 호소를 심장에 새아박고 세멘트상선작업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긴장한 전투를 벌려온 중앙과 도, 시의 일군들과 원산시인민들, 원산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북부피해복구전투장으로 세멘트를 싣고 떠나는 배를 뜨겁게 바래주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원산시와 원산항의 일군들과 인민들, 종업원들이 한시바삐 세멘트를 실어보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원산항의 일군들은 항만기중기를 비롯한 기계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세멘트를 실은 화물렬차가 항에 도착하는 즉시 제때에 때에 실을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원산시안의 인민들과 공장, 기업소로동자들이 세멘트를 부리는 작업에 떨쳐나 위훈을 창조하였다.

수송실적이자 피해복구속도이라는 자각을 안고 원산철도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도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북부전선에 필요한 세멘트수송과제를 제때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특파기자

우리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다

회령시에 파견된 조선인민군 군인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조선로동당의 군대이며 사회주의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입니다.》

살림집기초공사 힘있게 추진

선군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초소를 철벽으로 지켜가던 조선인민군 부대들과 려명거리건설장을 비롯한 대고조전장들에서 위훈을 떨치던 인민군군인들이 회령지구의 피해복구전선에 전개된것은 9월 중순이였다.

병사들앞에는 시의 여러 지역들에 근 2천세대의 살림집과 탁아소, 유치원, 진료소, 학교를 비롯한 100여동의 공공건물, 여러개의 다리와 수천m의 도로, 제방을 건설해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섰다. 특히 50여동에 근 1 000세대의 3층짜리 아빠트를 회령천기슭에 일떠세우는것은 회령지구의 피해복구전투에서 주타격대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유서깊은 회령땅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

이것이 회령지구의 피해복구전투에 진입한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인민군대의 정치일군들이 살림집건설에 떨쳐나선 병사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침입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의 의도가 맥박치는 구호판들과 속보판, 경쟁도표판, 붉은기들이 전투장들에 전개되고 방송선전활동, 기동예술선동활동 등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안겨줄 살림집건설은 당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지켜주기 위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회령시에 진출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피해복구전투에서 일당백공격정신, 단숨에의 기상을 높이 떨치고있다.

현함부대와 부대, 구분대단위로 불로크생산전투가 경쟁적으로 벌어졌다. 낮에 밤을 이어가며 긴장하게 벌어진 전투로 불과 3일동안에 수십만장의 불로크가 생산되였다. 인민군군인들은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을 채취하기 위한 전투와 목재생산전투도 동시에 밀고나갔다.

살림집건설부지와 설계가 확정되고 측량이 끝나자 각급 인민군부대들에서는 일제히 기초공사에 진입하였다.

병사의 일당백무쇠주먹으로 회령땅에서부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새 기적,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하려는 인민군장병들의 의지는 날을 따라 더욱 비상해지고있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조선인민군 방영철소속부대 군인들앞에는 끊어진 다리와 함께 모래와 감탕에 완전히 묻힌 수원지를 복구하며 수십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여야 할 전투과업이 하달되였다.

현지에 도착한 지휘관, 군인들의 눈에 먼저 띄운것은 신발을 벗고 무릎을 치는 강을 건느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모습이였다.

인민을 위해 가설다리를 만들어주자!

배낭을 벗어놓기 바쁘게 지휘관, 군인들은 강물속에 뛰여들었다. 그들은 강과 그 주변에 널려있는 돌들을 모아 불과 몇시간동안에 가설다리를 만들었다.

휴식도 식사도 뒤로 미루고 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병사들을 대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뜨거웠다.

한 로인이 병사들을 찾아왔다.

큰물피해지역에서 신발을 벗고 강을 건느는것을 너무도 응당한 일로 생각한 우리들이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피해지역으로 달려온 인민군대가 땀도 들이기 전에 우리를 위해 다리를 놓아주니 고마음의 인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

이렇게 말하는 로인의 눈시울은 젖어있었다.

부대의 정치일군인 김경삼동무는 그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우리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군대, 인민의 군대가 아닙니까.》

올해 봄 어느 한 기계공장의 현대화공사에 참가하였을 때에도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기쁨을 드린 부대의 병사들이였다.

지금 부대의 전체 지휘관, 군인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에 나선 돌격병사의 비상한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회령땅에 사회주의보금자리를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사회의 대풍모를 높이 발양시키자

더욱 고조되는 지원열풍

황해남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쉼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얼마전 황해남도인민위원회를 찾은 우리는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보내는 지원물자들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알알이 정성다해 골라 쌓아놓은 낟알더미들과 가정용품, 내의류 등 생활필수품들을 정히 포장한 수많은 지함들…

뜨거운 마음이 깃든 지원물자들을 보며 감동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도인민위원회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우리 도일군들과 인민들의 지원열의가 대단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또 다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대한 지원열의가 더욱 고조되고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조되는 지원열풍,

우리의 눈앞에는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사회의 참모습, 경애하는 원수님을 원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서로 돕고 이끌며 하나의 대가정으로 화목한 생활을 누려나가는 우리 사회의 대풍모가 뜨겁게 안겨왔다.

황해남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고 도당책임일군은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인민의 아픔과 불행을 가셔주는것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여기고 중대조치를 취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새길수록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해야 할 사명감이 더 깊이 새겨졌다. 즉시 피해지역 인민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기 위한 긴급협의회를 조직한 도당책임일군은 절절히 말하였다.

《추위를 앞에 두고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 인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 도가 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중대조치까지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덴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기수가 됩시다.》

협의회에서는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를 지원하기 위한 면밀한 작전계획이 세워졌다.

도안의 모든 선전선동력량이 총동원되여 북부피해복구전투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라는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선동공세를 들이대였다.

도당위원회, 도인민위원회 일군들은 가을걷이전투로 끓어번지는 협동벌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한줌의 쌀, 한가지의 생활필수품이라도 더 생산하여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도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이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더 많은 지원물자들을 보내주기 위하여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에 접한 연안군판개판리소 작업반장 허정옥동무는 한개 도의 일부 지역을 위해 온 나라의 모든 력량을 총집중, 총동원하는 이런 중대결심을 하는 인민의 어버이는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서 아들, 사위와 함께 용약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탄원하였다. 김종태해주제1사범대학 교원 김현명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 제시여 피해지역 주민들은 외롭지도 고독하지도 않으며 더 좋은 래일이 기다린다는것을 꼭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온 가족이 떨쳐나성의껏 마련한 많은 낟알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었다.

군농기계작업소 로동자 리금철동무를 비롯한 용진군의 근로자들은 16일 하루동안에만도 많은 이불과 함께 생활필수품 35종에 1 160여점, 부식물 4종에 수백kg을 비롯하여 많은 물자들을 지원하였다.

재령군의 인민들은 단 3일동안에 23종에 3 450여점의 생활필수품을 마련하였다.

해주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많은 알곡과 50여종에 6천여점의 생활필수품,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벽성군에서는 2일동안에 이불 100채, 담요 50장, 솜옷 100벌을 비롯한 20여종에 3천여점의 생활필수품을 지원하였다.

피해지역 인민들을 자기의 친부모, 친혈육처럼 생각하며 가정들에서 저축하였던 낟알과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준비했던 생활필수품들을 아낌없이 내놓은 사람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정녕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을 존재방식으로, 혁명적당풍으로 여기는 위대한 당이 있고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는 이런 훌륭한 인민이 있기에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는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가 펼쳐질것이다.

특파기자 박 철

—황해남도인민위원회에서—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함경남도 여러 공장, 발전소들에서

《여기도 전선이다》

함북도의 이웃에 자리잡고있는 함남도안의 공장, 발전소들에 가면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북부전선에 보낼 물자와 전력생산에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고있는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높뛰는 슴결을 뜨겁게 느낄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굳게 결합되고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이 되여 생사운명을 같이 해나가는 여기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철야전투를 벌리고 있는 여러 공장, 발전소들에 지휘처를 정한 도의 일군들은 피해복구전투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라는데 대해 깊이 인식시키면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안의 공장, 발전소들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싸우는 전선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한결같이 떨쳐나 증산투쟁을 본때있게 벌리고있다.

《여기도 전선이다.》

이렇게 웨치면서 북부전선에 보낼 자재와 생활필수품, 전력생산전투의 낮과 밤을 긴장하게 보내고있는 그 미더운 모습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후방도 전선이라고 하면서 전시생산전투를 치렬하게 벌려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한 후방인민들의 모습을 방불케 하고있다.

생산돌격전의 맨 앞장에 선 부래산세멘트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제일 긴요한것은 세멘트라고 하면서 수백t의 세멘트를 보내준 기세로 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그들은 소성로보수에서 걸린 문제들을 자체로 풀고 앞선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2기의 소성로보수를 계획보다 7일이나 앞당겨 끝내고 불을 지피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함흥강철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예비부속품들을 자체로 생산하여 로보수에 리용함으로써 보수시간을 단축하고 고대당 쇠물생산량을 늘여 환강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질좋은 전기를 보내주기 위해 떨쳐나선 허천강발전소, 장진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 금야강군민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발전기마다 만부하를 걸고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당의 호소에 화답하여 허천강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발전설비들의 가동대수를 높이고 호기당 출력을 높여 지난 8월에 비해 1.3배이상의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하여 중대결단을 내린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함흥련직공장의 일군들은 생산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면서 원료,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공정간 맞물림을 짜고들었다. 직장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매일 많은 내의와 양말을 증산하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함흥신발공장에서는 앞선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설비가동률을 최대로 높임으로써 계획을 매일 125%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과 함흥구두공장에서는 피해지역에 장화와 비닐신을 보내주기 위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19일현재 제기된 생산과제를 승리적으로 접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한1의 세멘트, 한W의 전기라도 더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해 산악같이 일떠선 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함남땅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있다.

특파기자 김 경 철

전선으로 달리는 뜨거운 마음

강원도의 인민들

친혈육의 정을 안고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뜨거운 혈육의 정을 안고 달려가는 사람들속에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있다.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은 즉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행과 아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지원사업에 너도나도 떨쳐나섰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그 어느 단위보다도 뜨겁게 받아안은 남다른 영예와 긍지를 안고 사는 그들이기에 하루동안에만도 많은 량의 식량과 어려태의 텔레비존, 수십종에 2 000여점에 달하는 의복류와 생활필수품, 당과류들을 정성껏 마련하여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었다.

이들뿐이 아니다. 도안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한 단위들은 물론 가두인민반원들로부터 나어린 소년단원들에 이르기까지 지원사업에 남녀로소 모두가 떨쳐나서고있다.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향하는 지원의 열풍은 그대로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사회의 대풍모를 과시하며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늘어나는 탄원자대렬

얼마전 관료군에서는 군안의 일군들과 주민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관료군도로보수관리대 대장 장정환동무를 비롯한 30명의 종업원들이였다.

북부피해복구전투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아안은 그들은 남다른 격정에 휩싸였다. 최단기간에 혹심한 피해후과를 가시고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는것이 우리 당의 절심이라는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의 구절구절을 되새기며 그들은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 최전방인 북부피해복구전선에 탄원해갈것을 결의해나섰던것이다.

이들뿐이 아니다. 원산시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옥문성, 상서청년광산 로동자 강정명, 안변과수농장 로동자 김명진동무를 비롯하여 북부피해복구전투장으로 탄원하는 사람들의 수는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소년단원들이 보낸 편지

얼마전 2중영예의 붉은기 원산시 해안소학교의 나어린 소년단원들이 북부피해복구전투장으로 수백통의 편지를 보내였다. 매 편지의 구절마다에는 인민군군인들과 돌격대원아저씨들이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해줄것을 절절히 바란다는 내용과 비록 나이는 어려도 아저씨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을 더 잘해나갈 소년단원들의 결의가 담겨져있었다.

온 나라가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총력을 집중하고있는 때에 소년단원들인 우리도 한몫 맡아하겠다고 편지에서 다진 결의대로 나어린 꼬마들은 학습이 끝난 후 가창대활동도 벌리고 건설용자재생산을 맡은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가 학생소년예술선전대활동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당의 호소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강원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물론 나어린 소년단원들의 힘있는 지원은 그대로 북부피해복구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위훈과 기적창조의 불길로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청년들이 서야 할 위지

혜산청년광산 청년돌격대원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앞장에 슬기롭고 영웅하고 미더운 청년전위들이 서있다.

북구전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투적기질과 본때를 떨쳐가고있는 그들속에는 혜산청년광산 김혁청년돌격대 대원들도 있다.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이렇게 웨치며 조국이 가장 엄혹한 재난을 당한 때에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북부전선으로 서슴없이 달려가야 한다고 하면서 북부전선으로 탄원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러자 청년돌격대원들은 앞을 다투어 그에 호응해나섰다.

백강철동무를 비롯한 청년돌격대원들로 말하면 유색금속광물 수선능력조성을 위한 마산갱도, 통기정화장공사를 비롯한 광산의 가장 어렵고 힘든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제끼는데서 한몫단단히 하는 혁신자들이었다.

북부전선으로 떠나는 청년돌격대원들을 위하여 축하공연이 있은 날 저녁 2소대장 김명철동무와 안해 오광심동무사이에는 이런 말이 오고갔다.

《저도 북부전선에 함께 갈수 없나요?》

《그러면 집은 어떻게 한단 말이요?》

《집이야 부모님들에게 맡기면 되지 않나요. 북부피해복구전투는 전쟁이나 다름없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있을수 있겠나요.》

《그렇지. 우리 함께 전선으로 가기요.》

이리하여 그들부부는 전투배낭을 메고 나란히 집문을 나섰다.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강보에 싼 아이를 이웃집에 맡겨둔채 백두산으로 떠나간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정신이 함북도 피해복구전선으로 떠나는 이 시각 심장속에 고패치는 그들이였다.

돌격대정치지도원 윤명현동무는 먼길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부모를 잃은 돌격대원 김광민동무의 몫까지 생활용품을 준비하였다. 처녀돌격대원 박선경동무는 작업도중에 뜻하지 않게 다리를 상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몸이지만 북부전선으로 떠나는 대오에 자진하여 들어섰다.

이런 뜨거운 마음과 마음이 합쳐진 대오는 광산마을사람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떠났다.

전선으로 떠나는 그들을 위하여 광산에서는 솜옷을 일식으로 마련해주었고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보내는 지원물자도 함께 보내주었다.

그로부터 며칠후 광산초급당위원회에 멀리 북부전선에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청년돌격대원들이 현지에 도착한 즉시 전투에 진입하여 철길복구공사에서 혁신하고있다는 소식이였다.

그렇다. 청년들이 서야 할 위치는 우리 당이 부르는 가장 어렵고 힘든 초소였다.

특파기자 전 철 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3일 윤태길 이바라기조선초중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락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주체조국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재일동포자녀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제43차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회의 진행

제43차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회의가 20일부터 22일까지 신계군에서 진행되였다.

전시회에는 각지 농기계공장들과 과학, 교육부문 등의 많은 단위가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5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평가해주신 농기계들과 우리 나라 지형조건과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는 자동식, 반자동식, 수동식 물절약형, 로력절약형의 농기계, 다기능화된 농기계 등 30여종에 240여대의 농기계, 부속품, 지구장비들이 전시회에 출품되였다.

전시회에서는 토양관리기계, 파종 및 이식기계, 비배관리기계, 수확 및 탈곡기계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부속품, 지구장비들에 대한 심의와 평가, 현장시험이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의 토양조건과 사용자들의 편리에 맞으며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는데서 효률적인 두둑짓는기계, 종합토양관리기계, 종자정선기, 이동식강냉이종합탈곡기, 나래짜는기계 등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평양시가 특등을, 황해북도가 1등을, 평안남도, 남포시가 2등을, 평안북도, 함경남도가 3등을 하였다.

창안자회의에서는 당의 농촌진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절실히 필요한 새로운 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하고 도입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폐막모임에서는 우수한 단체들과 창안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제16차 5.21건축축전 폐막

제16차 5.21건축축전이 폐막되였다.

축전기간 참가자들은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며 나라의 건축과학기술을 첨단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였다.

날로 발전하는 건축설계의 면모를 반영한 《나래》, 《지원》, 《장수》, 《은덕》 등의 건축형성안들은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크릴제칠감, 발로부각수지벽지, 지능형바닥연마기를 비롯하여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만든 건재품들과 기공구들도 호평을 받았다.

축전에서는 《에네르기절약형건물설계방법에 대한 연구》, 《기념비적건축물조명을 위한 조명탑시공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 《조선식건축물설계》 등 건설설계프로그람 및 다매체편집물들과 많은 론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폐막식이 23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다.

김덕훈내각부총리, 관계부문, 건설부문 일군들, 건축가, 기술자, 과학, 교육기관 교원, 연구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들과 참가자들에게 컵과 상장, 표창장, 증서 등이 수여되였다.

심영학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폐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 건축가, 기술자들이 건설장비, 기공구의 국산화, 현대화를 다그치고 록색건축, 지능건축을 비롯한 첨단건축기술을 널리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건재품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실현하는데서 보다 큰 전진을 가져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건설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건설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면하여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15차 평양국제영화축전 폐막

【평양 9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영화인들의 깊은 관심속에 지난 16일에 개막되였던 제15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폐막되였다.

축전폐막식이 23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있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리룡남내각부총리,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박춘남문화상,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인범 문화성 부상 겸 영화총국 총국장, 관계부문 일군들, 영화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시내근로자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축전에 참가한 대표단, 대표들, 국제심사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부들, 무관들, 대사관 문화관계일군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손님들이 폐막식에 초대되였다.

폐막식에서는 먼저 축전에 출품된 영화들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였다.

이어 출품된 영화들에 대한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시상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제15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이 올리는 편지가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박춘남위원장이 폐막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과 다양한 인간생활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이 출품된 이번 축전은 세계영화발전을 선도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고 말하였다.

축전참가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에 지지를 표시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참가자들이 이번 축전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살려 훌륭한 영화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민족영화와 세계영화발전에 이바지하려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취주악 《빛나는 조국》이 연주되는 속에 평양국제영화축전 기발이 내리워졌다.

제15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영화상: 조선예술영화 《우리 집 이야기》

장편예술영화 연출상: 로련예술영화 《흑색마차》

장편예술영화 문학상: 인디아예술영화 《어리광대 살리》

장편예술영화 촬영상: 프랑스예술영화 《뜻대로 되는 5월》

장편예술영화 남배우연기상: 로련예술영화 《흑색마차》의 남주인공

장편예술영화 녀배우연기상: 조선예술영화 《우리 집 이야기》의 녀주인공

장편예술영화 미술상: 프랑스예술영화 《뜻대로 되는 5월》

장편예술영화 음악상: 인디아예술영화 《마싸안》

장편예술영화 기술상: 중국홍콩예술영화 《위호산을 점령하다》

기록 및 단편영화 연출상: 스위스기록영화 《어지러운 금전정》

기록 및 단편영화 촬영상: 로련단편예술영화 《할아버지와 손자》

기록 및 단편영화 구성상: 조선만화영화 《답을 찾은 두 소년》

국제심사위원회 특별상: 방글라데슈예술영화 《잘람의 이야기》

축전조직위원회 특별상: 수리아예술영화 《어머니》

도이췰란드예술영화 《피난처》

특별상영상: 스위스기록영화 《공연만큼 좋은것은 없다》

필리핀기록영화 《파라이쏘》

수리아예술영화 《사랑하는 사람》

로련예술영화 《고요한 국경초소》

조선기록영화 《번영하는 평양》

공화국내각에서 제15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을 위하여 연회 마련

【평양 9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에서는 제15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2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축전참가자들을 위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축전에 참가하였던 여러 나라 대표단, 대표들, 국제심사원들이 초대되였다.

리룡남내각부총리,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박춘남문화상,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인범 문화성부상 겸 영화총국 총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 국제학술토론회가 진행된다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 국제학술토론회가 주체105(2016)년 9월 29일과 30일에 진행된다.

《과학발전과 사회적진보》라는 주제밑에 진행되는 이번 국제학술토론회에는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권위있는 교육자, 과학자들이 참가하게 된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정치학, 경제 및 금융학, 문학, 력사학, 언어학, 수학, 물리학, 생명과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연구성과들이 발표되게 된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주최하는 이번 국제학술토론회는 세계 여러 나라 대학, 연구기관들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추동하고 인류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될것이다.

재일조선인법률가대표단이 떠나갔다

임경하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인법률가대표단이 23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25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 경기관에서는 4.25체육단, 평양체육단, 상업성체육단, 기관차체육단, 조선체육대학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탁력망 1급경기가 진행된다.

청년선수권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다음주에 계속된다.

력기경기가 29일까지 청춘거리 력기경기관에서 있게 된다.

녀자지상호케이경기가 30일까지 릉라인민체육공원 지상호케이장에서 진행된다.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귀국

장연평 베이징청년보사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23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파산을 면할수 없는 반공화국대결정책

우리의 핵폭음에 완전히 얼이 나간 남조선괴뢰들의 히스테리적인 대결발작증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다.

얼마전 박근혜역도는 국무회의라는데서 그 누구를 《끝장내겠다는 각오》니, 《고도의 응징태세》니 하며 입에서 구렁이가 나가는지 뱀이 나가는지 모르고 고아댔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역도는 《새로운 제재방안》이니 뭐니 하고 고리타분한 너두리를 또다시 늘어놓다 못해 《싸드》배치와 함께 《독자적인 군사대응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졸개들을 다그어댔다. 청와대마녀의 살기띤 지령에 따라 괴뢰군부패당은 군사분계선과 서해의 열점지역들을 싸다니며 극도의 대결망동을 부리고있다. 한편 괴뢰외교부 장관 윤병세를 비롯한 얼간망둥이들은 밤낮 《고강도북핵대응》이니, 《강력한 대북압박》이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반공화국공조구걸놀음에 미쳐돌아가는가 하면 《새누리당》패거리들은 제세묵은 《핵무장론》따위를 들고나오면서 불는 불에 키질하고있다.

문제는 괴뢰패당의 이러한 호전적망동이 정의의 핵과 북제의 핵이 첨예하게 대치하고있는 위험천만한 곳에서 분별을 가리지 못하고 감행되고있다는데 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 괴뢰당국의 《대북강경책은 정책이 아니라 자멸의 길》이라고 신랄히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박근혜패당이 분수없이 놀아댈수록 반공화국대결정책의 허황성과 위험성은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민심의 분노가 나날이 치솟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괴뢰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은 한시바삐 없애버려야 할 민족의 재앙거리이다.

괴뢰들이 반공화국대결정책에 한사코 매달려 한것이란 미국의 핵전쟁장비들을 끌어들여 북침핵전쟁불장난을 매일같이 벌려놓으면서 북남관계를 결딴내고 대결의 극한점에로 몰아간것뿐이다. 지금 괴뢰들이 미국상전의 핵전쟁장비들을 마구 끌어들이면서 그 무슨 《붕괴》니, 《교체》니 하는따위의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뇌까려대는것은 역적패당이 추구해온 대결정책의 궁극적목적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준다.

괴뢰들의 동족대결정책은 남조선인민들에게도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오물단지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실행의 돌격대가 되여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그 누구보다 피눈이 되여 날뛰는 천하의 불한당들이 남조선인민들이야 죽든말든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마구 끌어들이며 핵선제타격을 노린 북침불장난소동을 벌려놓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바싹 몰아가느라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고있다. 동족압살의 개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반역행위도 서슴지 않는 박근혜역적패당의 대결망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어느 하루도 소란하지 않은 날이 없다.

그러나 괴뢰들이 아무리 《강경대응》이니 뭐니 하며 쥐메없는 대결광기를 부려도 그것은 미국의 핵전쟁미슴군으로서의 가련한 정체를 가리우고 대결정책의 총파산을 막아보려는 약자의 히세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패당이 가량없으로는가리는 식으로 달라진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제재》와 《압박》공조따위로 그 누구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하는것이야말로 백년, 천년이 가도 실현될수 없는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과 괴뢰들이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매달려 얻은것이란 쥐뿔도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의 날로 가증되는 핵전쟁위협에 핵무력고도화로 대응하는것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권행사로서 그 누구도 시비비야할수 없다. 이번에 우리가 단행한 핵탄두폭발시험은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무섭게 치솟는 선군조선의 영용한 기상의 장쾌한 분출이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압살해보려고 미친듯이 날뛰는 적대세력의 정수리를 후려갈기는 무지비한 철추이다.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이 있은 후 정세전문가들은 《미국주도의 대북제재화장은 북의 핵발전을 막는데 분명히 실패했다.》, 《미국이 제재가 아닌 다른 대안들을 선택해야 할 때이다.》, 《북이 요구하는 의제를 놓고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등으로 제나름의 정가를 내리고있다. 남조선에서 《싸드》무용론과 《대북제재》가 《북핵의 명분만 더욱 강화해준다.》는 여론이 높아가고있는 속에 얼마전 어느 한 신문은 《우리로서는 현실적으로 더이상 미국의 핵우산정책에 기대할수 없게 되었다. 북이 남에 대한 핵공격을 하더라도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미싸일의 본토공격가능성을 우려한 국내여론때문에 미국정부가 북에 대한 핵보복에 나서지 않을것으로 절대다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지금 남조선에는 허망한 대결정책을 한사코 붙들고 미국의 핵전쟁살인장비들 비롯한 온갖 화근덩어리들을 서슴없이 끌어들이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박근혜와 같은 미친년 하나때문에 어떤 끔찍한 참화를 당할지 알수 없다는 흉흉한 여론이 떠돌고있다. 《싸드》배치의 절사반대를 웨치는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이 보다 활발해지고 괴뢰패당의 동족대결정책의 실패상을 폭로하면서 그것의 폐기를 주장하는 남조선 각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는것도 바로 그러한 분위기의 반영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의 핵위성에 맬이 뒤집힌 박근혜패당이 그 무슨 《강력대응》이니, 《새로운 제재방안》이니 하고 반공화국압살분위기를 고취해보려고 지랄발광하고있지만 그러한 망동은 저들의 패배상을 가리우고 잔명을 부지하기 위한 단말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의 종착점은 북침전쟁도발이다.

지금 박근혜패당이 《평양초토화》니, 《전쟁지휘부제거》니 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도발적망발을 거리낌없이 줴쳐대며 극도의 호전적광기를 부려대는것이 그에 대한 실증이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는 법이며 괴뢰패당의 대결광기가 절정에 달하면 전쟁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 어떤 침략행위와 도발책동도 일격에 짓뭉개버릴수 있는 완벽한 군사적대응수단을 다 갖추고있으며 이번에 진행한 핵탄두폭발시험은 그 위력의 증시이다. 괴뢰패당은 그 어디를 초토화하겠다고 주둥이질한 대가가 얼마나 처절할것인가에 대해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패당이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에는 아랑곳없이 미일상전들과의 반공화국모의판을 벌짐나게 벌려놓고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하나라도 더 끌어들이지 못해 안달복달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조성하는것은 사실상 남조선을 핵불도가니속에 빠뜨리고 제 숨통마저 스스로 조이는 미련한짓이다.

화근덩어리는 뿌리채 뽑아버려야 후환이 없다.

남조선인민들이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려 핵전쟁의 불구름을 사정없이 몰아오는 박근혜패당을 과멸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어야 자신들이 살 길이 있다는것을 깊이 깨닫고 반역무리를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당연이 정당하다.

박근혜패당의 최후발악적인 망동은 그들이 풍지박산난 대결정책을 걷어안고 력사의 무덤에 처박힐 날이 가까와오고있다는것을 예고해주고있다.

박 철 준

제 무덤을 파는 무모한 객기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에 기겁한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이 여기저기를 주린 개처럼 싸다니며 동족대결을 고취하고 북침전쟁을 미친듯이 선동하고있다.

추석을 계기로 백령도에 코를 들이민 괴뢰국방부 장관 한민구역도는 졸개들앞에서 오강뚜껑같은 주둥이를 너풀거리며 그 누구의 《도발시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을 통해 재도발의지를 뿌리뽑아야 한다.》느니, 《도발은 완전한 고립과 자멸을 재촉하는 지름길》이라느니 하고 구린내나는 침방울을 튕겨댔다. 같은 날 괴뢰륙군, 해군, 공군의 참모총장이라는자들도 관하부대들을 돌아치면서 《적이 도발하면 그 자리를 적의 무덤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기염을 토했다.

그로부터 이틀후 서해 5개 섬일대에 둥지를 튼 해병대패거리들을 찾아간 괴뢰해병대사령관 리상훈도 《고슴도치와 같은 존재》니, 《치명적인 피해》니 하고 한바탕 떡설을 해댔다. 한편 괴뢰군부쟁패들은 미제침략군과 함께 지난 조선전쟁시기의 락동강전투를 재연하는 놀음도 벌려놓았다.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이 그 무슨 《일전불사》를 떠들어대며 누구를 어째보겠다고 객기를 부리고있는것은 실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분별없이 날뛰는 괴뢰들의 추태는 꼭 범무서운줄 모르고 함부로 덤벼드는 햇강아지 꼴그대로이다.

문제는 우리의 핵뢰성에 혼비백산하여 때맞은 암개마냥 슴을 구멍만 찾던자들이 황급히 서해열점지역들과 괴뢰군부대들을 싸다니면서 대결광기를 부리고 미국과 함께 전쟁불장난을 벌려놓고있는 목적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남조선사회전반에 《안보불안》을 더욱 조장하여 저들이 처한 심각한 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는 교활한 술책이다.

지금 박근혜패당은 헤어나올수 없는 과멸의 수렁속에서 허우적거리고있다. 지난 3년 남짓한 기간에 걸치는 청와대마귀할미의 반역통치는 북남관계는 물론 남조선사회전반을 총체적위기에 몰아넣었다. 북남관계를 완전히 풍지박산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며 경제와 민생을 최악의 도탄속에 몰아넣은 최세의 역적무리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

바싹맞은 괴뢰패당이 또다시 《안보위기》를 극구 고취함으로써 여론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해보려고 피하고있는것이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민심의 버림을 받고 안팎으로 고립되여 개 몰리듯 하고있는 박근혜패당이 이제 어떤 무분별한 모험에 나설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역적패당은 대내외정책의 총파산과 그에 따른 통치위기의 심화로 저들의 지반이 밑뿌리채 흔들리게 되자 그로부터의 출로를 긴장격화와 전쟁도발에서 찾으려 하고있다. 최근 꼬리를 물고 감행되고있는 특대형도발소동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대북응징태세에 만전을 기하라.》는 청와대의 늙다리할미의 지령에 따라 괴뢰군부악당들은 《북수뇌부직접공격》을 위한 《참수작전》과 《평양초토화》에 동원할 특수작전무력과 각종 정밀타격미싸일들을 전시태세에 진입시키고 미국상전의 핵전쟁살인장비들까지 끌어들이면서 분주랑을 피워대고있다. 이것이 불패의 핵강국인 우리에 비한 저들의 전략적열세를 만회해보려는 어리석은 기도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물안의 개구리나 다름없는 박근혜역적패당은 오산하고있다. 괴뢰들이 도저히 알수도 없고 계산할수도 없는것이 우리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이다.

우리의 핵탄이 발사되는 그 순간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 몰려있는 동족대결의 아성 서울이 완전재더미로 되는것은 물론이고 괴뢰들이 그토록 구세주처럼 믿고있는 미국도 무사할수 없다.

괴뢰들은 저들의 일거일동이 우리 군대의 멸적의 핵조준경안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강위력한 핵타격수단들을 갖춘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에 맞서보겠다는것은 작두날에 목을 들이미는 미련한짓일뿐이다.

전쟁은 결코 허바닥으로 하는것이 아니다. 박근혜패당은 《북수뇌부제거》망동이 청와대의 완전궤멸과 서울재더미만을 초래케 할것이라는 우리의 경고를 심중히 대해야 한다. 그것만이 격노한 우리 군대의 섬멸적인 타격을 피할 유일한 방도이다.

심 철 영

애족애국운동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나가자

일본 오사까에서 《우리 민족포럼 2016》 진행

애족애국운동에서의 일대 전환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우리 민족포럼 2016》이 11일 일본 오사까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들, 부영속 총련오사까부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각 본부 위원장들, 중앙단체, 사업체책임일군들과 학교교장들, 각지 동포, 학생들 그리고 림영철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회장과 김창본 오사까부청상회 회장을 비롯한 각지 청상회 역원, 회원들, 일본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오사까부청상회를 중심으로 총련 오사까부본부관하 모든 단체와 일군, 동포, 학생들의 일치한 노력에 의해 20번째로 열린 이번 《포럼》은 종래의 《우리 민족포럼》과 《1만명 동포대축전》의 2부로 나뉘어 력대 최대규모로 개최되였다.

《우리 민족포럼》에서는 동포사회의 애족애국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방도들에 관한 토론들과 연극, 편집물상영 등이 있었다. 또한 유족한 동포사회, 꽃봉오리들의 찬란한 미래를 기어이 안아오는데서 키수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오사까부청상회의 결의가 표명되였다. 이어 오사까조선고급학교 운동장에서 《1만명 동포대축전》이 있었다.

허종만의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민족교육사업에서 종래에 없었던 심각한 사태가 조성되고 일본반동들과의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오사까에서 민족교육을 사수할 불같은 의지를 안고 이번 《포럼》의 성공을 위해 분투해온 오사까부청상회, 총련 오사까부본부관하 전체 일군들과 동포들에게 격려와 고무의 인사를 보내였다.

뜨거운 애족애국의 마음이 담겨진 《합치자! 우리 마음, 떨치자! 우리 힘, 웃음넘친 동포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전환을 안아오자 오사까》의 구호를 들고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과감히 짓부시면서 애족애국운동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것을 그는 호소하였다.

《애족애국의 제주봉 이어가리》라는 제목의 음악무용종합예술공연이 진행되였다.

취주악과 대합창 《조국찬가》로 막을 올린 공연무대에는 학생들과 오사까조선가무단 단원들의 노래와 춤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각계층 동포들이 재담 등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출연하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오사까조선가무단의 민요련곡이 울려퍼지는 속에 서로 어깨를 잡고 《통일렬차》를 이룬 참가자들은 통일의 환희가 차넘칠 민족의 래일을 그려보며 축전장을 기운차게 달리였다.

김창본 오사까부청상회 회장은 페회사에서 각계층 동포들이 일심단결된 힘으로 우리 학교를 지키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장화발전에 힘차게 이바지해나갈것을 뜨겁게 호소하였다.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대화 주장

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지난 13일 괴뢰외교부앞에서 평화행동을 가지고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대화를 주장하였다.

단체성원들은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는 프랑카드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핵문제 해결할수 없다》, 《북핵문제 대화로 해결하라》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조선반도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을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질규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북의 핵시험을 《싸드》배치강행의 구실로 삼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쟁부나비들의 어리석은 광란

천둥소리에 놀란 미친개들이 소란스럽게 짖어대고있다.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괴뢰군부쟁패들이 비루먹은 개상통을 여기저기 내밀며 북침전쟁을 미친듯이 선동하고있다. 지난 9월 14일 백령도에 위치하고있는 해병대쟁패들을 찾아간 괴뢰국방부 장관 한민구역도는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에 대해 《정면도전》이니, 《로골적인 위협》이니 하고 또다시 케케묵은 《도발》타령을 늘어놓으면서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으로 《재도발의지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다 써어본드러진 이발을 갈며 발광을 부렸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괴뢰륙, 해, 공군 참모총장이라는자들도 줄레줄레 각지의 괴뢰군부대들을 싸돌아치며 그 누구의 《도발》이 있을 경우 《단호하게 응징》하라느니, 《무덤으로 만들라.》느니 하고 졸개들을 다그어댔다.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고 괴뢰군부쟁패들의 추태야말로 제 주제도 모르고 헤덤비는 전쟁부나비들의 가소로운 망동이다.

지금 미국의 식민지고용군이며 폭행과 기합에 의해 간신히 유지되는 오합지졸의 무리인 남조선괴뢰군은 사상정신상태로부터 전투능력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만신창이다. 군기강은 해이될대로 해이된 속에 공포에 질리고 염전분위기에 빠진 사병들이 매일과 같이 탈영, 자살하고있다.

이런 부패타락한 군대를 가지고 동방의 핵강국, 백두산혁명강군과 감히 맞서보겠다는것은 썩은 달걀로 바위를 깨보겠다는 격의 실로 어리석은짓이다. 미국의 대포탄, 총알받이에 불과한 괴뢰군이 결코 우리의 상대가 안된다는것은 남조선내부에서도 인정하고있는 사실이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더욱 강화되고있는 우리의 자위적핵무력에 대해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이남땅덩어리 북미싸일에 벌거벗은채로 방치되어있다.》, 《북의 미싸일을 어떻게 때발백중하느냐? 〈싸드〉는 필요없지.》, 《북의 〈화성-10〉은 〈싸드〉 할애비가 와도 못잡는다.》라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있다. 한편 미국의 조종밑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결의》를 조작하려고 분주랑을 피우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대해 《동네바보들의 모임》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것이다. 더 늦기 전에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공포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괴뢰들뿐이 아니다. 지어 미국에서도 본토까지 날아올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미행정부가 《대북압박기조》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될것이라는 예측이 나돌고있다.

그런데 미국의 더러운 하수인 시험을 계기로 극히 무분별하게 날뛰면서 대결과 전쟁을 선동하고있는데는 다른 속심도 있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의 《도발》과 《핵위협》에 대해 요란히 광고하면서 그것을 구실로 저들의 군사적도발책동을 정당화하고 미국과 야합하여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자는것이다.

원래 있지도 않는 《북의 위협》을 떠들며 그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북침전쟁도발소동에 광분하는것은 남조선괴뢰들의 상투적수법이다.

력사를 돌이켜보자. 지난 조선전쟁도발에 앞서 리승만괴뢰패당은 《북으로부터의 남침이 박두했다.》는 인상을 세계에 주라는 미국의 지령에 따라 《5, 6월 위기설》과 《남침위협》에 대하여 고아대기 시작하였다. 당시 괴뢰국방부 장관이였던 신성모역도는 1950년 5월 10일 기자회견까지 벌려놓고 《북조선군이 대부대로 38°선으로 이동중에 있으며 북으로부터의 침략위협이 박두하고있다.》는 터무니없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이런 모략남조선전에 광분하며 전쟁광기를 부리던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끝끝내 침략의 도화선에 불을 달고야말았다.

남조선에서 우리를 걸고들며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미친듯이 감행하는 괴뢰통치배들의 범죄의 력사는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특히 박근혜역적패당의 집권이후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조치를 악랄하게 시비중상하며 그것을 구실로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범죄적망동은 최절정에 달하고있다.

올해에만도 괴뢰패당은 《북의 도발》에 대비한 《응징태세》를 갖춘다는 명목하에 《키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 등 북침을 가상한 대규모적인 전쟁불장난소동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한편 자주권과 생존권,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인 핵무력강화조치를 《도발》이라고 터무니없이 헐뜯으면서 《경고》니 뭐니 하며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에 끊임없이 끌어들이였다. 최근 미제침략군의 핵전략폭격기 《B-1B》편대가 남조선에 긴급출격하여 극도의 긴장국면을 조성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괴뢰들은 오는 10월에는 그 누구의 《도발》에 대비한다는 간판밑에 미태평공모함까지 끌어들여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려 하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진짜도발자, 침략자, 정화의 과괴자는 바로 미국과 그 하수인인 괴뢰역적패당이라는것이다.

박근혜패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온 민족이 한결같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북남관계개선을 바라고있는 때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도발》이니, 《응징》이니 하며 함부로 주둥이질을 해대는것이야말로 스스로 징벌의 불소나기를 청하는 어리석은 자멸행위이다.

진짜전쟁맛, 불맛이 어떤것인지 아직 모르는 부나비들이 그 무슨 《응징》나발을 불어대며 설쳐대지만 그것은 사실상 저승길을 재촉하는 장송곡일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이 사소한 도발의 불씨라도 튕긴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자비한 공격으로 전쟁미치광이들에게 백두산총대의 위력을 똑똑히 보여주고 이 땅에서 도발의 근원을 송두리채 틀어내고야말것이다.

장 임 향

현실은 암흑의 인간생지옥을 고발한다

오늘 남조선은 박근혜라는 청와대의 암흑사가 뽀리를 틀고있는 지옥으로 불리우고있다. 그에 대해 괴뢰역도가 남조선을 부정적으로 표사하는 《잘못된 풍조》니 뭐니 하며 야단치고있지만 지금이 시각도 사는것이 죽음보다 더 고통인 지옥같은 현실을 절규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울분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터져나오고있다.

남조선은 《유신》독재의 부활로 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짱그리 유린말살되는 파쑈독재사회이다.

박근혜역도가 집권하자마자 《유신》잔당들과 심복졸개들을 규합하고 각종 파쑈악법들을 부활시키는 독재체제구축놀음부터 벌리였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역도의 파쑈적기질은 《전도개정신》을 부르짖으며 진보민주세력을 카차없이 탄압, 숙청한데서 명백히 드러났다. 괴뢰역도의 파쑈적망동에 의해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합법적인 정당, 로조단체, 언론이 하루아침에 《종북세력》으로 몰려 강제해산, 폐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최근 남조선에서 국우보수언론인 《조선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의 권력형부정부패사건을 보도한것으로 하여 청와대의 박해를 받고있는 사실은 박근혜역도의 파쑈독재광으로서의 기질을 잘 보여주고있다.

역도의 파쑈독재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사수투쟁까지 《불법》으로 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는데서 극치를 이루고있다. 지난해말 괴뢰들이 민중총궐기투쟁에 참가하여 생존권사수를 웨치던 고령의 한 농민을 몰대로 쏘아 사경에 처하게 만든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그싹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파쑈독재사회가 다름아닌 남조선사회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패당은 임의의 대상과 단체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합법화하는 제2의 《보안법》인 《테로방지법》까지 조작하여 인민탄압에 열을 올리고있다. 청와대안방에서부터 몰아치는 파쑈독재의 광풍속에 《민주주의가 사망하고 70년대의 〈유신〉독재시기가 복귀된 지옥》이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있다.

남조선은 한줌도 못되는 특권족속들이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짓밟고 현대판노예생활을 강요하는 인권의 불모지이다.

얼마전 괴뢰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민중을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망발을 거리낌없이 늘어놓아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이자의 망언은 결코 실수가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을 말그대로 짐승처럼 취급하는 박근혜패당의 반인민적정책의 집중적표현이다. 비범적인 로동행위를 감시한다는 근로감독관이라는자가 밀린 임금을 받게 해달라고 찾아온 로동자들에게 《요즘 노예라는 말이 없어 그렇지 노예적성질이 근로자들에게 다분히 있다.》고 뇌까리면서 그들을 노예에 비유하는 망언을 내뱉은것도 근로인민들을 착취의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괴뢰패당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이런 반인민적인 사회에서 로동자들은 죽음의 고역을 치르며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하고있다. 최저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 570여만명, 850여만세대가 세방, 쪽방, 비닐집, 판자집, 음막 등에서 생활, 이것이 오늘날 남조선인민들의 처지이다.

남조선은 세계적인 제난지역으로도 유명하다. 《민중안전》, 《민중보호》를 념불외우듯 하는 박근혜패당이 심지 한것은 민중죽이기뿐이다.

괴뢰들은 미제침략군의 탄저균실험을 묵인조장하고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놀음을 벌림으로써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벼랑끝에 올려세웠다.

수백명의 어린 목숨들을 바다물속에 수장시킨 《세월》호대참사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파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괴뢰집권세력의 고의적인 집단학살범죄이다. 역도가 《세월》호가 조난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7시간동안이나 제분장을 보며 돌아친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남조선을 불안과 공포가 차넘치는 사람 못살 사회로 전락시킨 박근혜패당의 죄악은 지난해의 메르스(호흡기성전염병)사태에서 다시금 여실히 드러났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청소년들이 앞날에 대한 꿈도 희망도 모두 잃고 절망속에 신음하고있다.

반인민적인 교육정책에 짓눌려 수많은 청소년들이 배움의 꿈을 버리고있다. 대학생의 80%이상이 등록금마련을 위해 식당이나 유흥업소에서 품팔이를 하고있으며 지어 생체실험에 자기 몸을 바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신성한 교정이 온갖 범죄의 서식장으로 되고있다. 《학교가 아니라 지옥이다.》, 이것이 남조선청소년들의 웨침이다.

미래가 없는 암담한 남조선사회의 현실은 청년실업문제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 청년실업률이 34.2%에 달하는 속에 청년들이 사랑,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 집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세대》에 이어 아예 삶자체를 포기하는 《삶포세대》로 불리우고있다. 청춘의 푸른 꿈과 리상을 안고 활기에 넘쳐야 할 청년들이 모든것을 자포자기한 《청년력수》가 되여 거리를 방황하고 자기가 태여난 곳을 《지옥》이라고 저주하며 해외에로 떠나가고있는것이 오늘의 남조선현실이다.

사람 못살 남조선에서 늘어나는것은 다름아닌 자살현상이다. 앞날에 대한 비관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반역통치배들을 저주하며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어느 한 주민이 《자식에게 미안해도 이 저주로운 땅에 그의 미래를 맡길수가 없어 함께 떠난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어린 자식과 함께 목숨을 끊은것은 남조선사회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짱그리 유린말살하는 세계최악의 인간생지옥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남조선을 이런 몰서리치는 인권불모지로, 지옥으로 만든 박근혜역도야말로 지체없이 때려잡아야 할 악귀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지옥의 늪에서 벗어나 인간의 참다운 삶을 찾는 길은 인권교살로 악명떨치는 박근혜역도를 단호히 매장해버리는데 있다.

리 효 진

생화학전의 참화를 몰아오는 범죄자

미국이 그 무슨 《쥬피터계획》에 따라 탄저균과 같은 치사물이 매우 높은 병독성세균들을 연구하는 생화학무기실험실을 남조선의 부산에 설치하는 놀음을 벌려 내외의 강력한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미 폭로된바이지만 《쥬피터계획》이라는 것은 미국이 북침전쟁에 대비하여 적극 다그치고있는 범죄적인 생화학전준비책동이다.

미제는 세균무기사용을 금지할데 대한 국제법과 전쟁규범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벌써 악랄한 세균전범죄를 감행하여왔다.

우리 인민군대의 맹렬한 반공격에 의해 거듭 참패를 당한 미제는 세균전에 기대를 걸고 1952년 1월초부터 3월에 이르는 기간에만도 공화국북반부의 169개 지역에 연 804차례에 걸쳐 세균탄들을 투하하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이후에도 세균전흉계를 버리지 않은 미제는 남조선의 곳곳에 세균무기연구소들을 차려놓고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야만적인 생체실험대상으로 삼으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씌웠다. 지난해에는 미제침략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은 물론 페스트균까지 남조선에 몰래 반입하여 실험을 진행한것이 드러나 온 세계를 경악케 하였다. 이것이 미제침략군의 《쥬피터계획》에 따른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북침생화학전기도가 그대로 비낀 《쥬피터계획》이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을 불러일으키자 뻔뻔스럽게도 그 누구의 《생화학전에 대응하는 체계》라느니, 《방어와 보호》를 위한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화학무기실험실을 부산에 한사코 설치하려고 획책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의 생화학무기실험실설치책동은 명실공히 전체 조선민족을 세균전의 참화속에 몰아넣기 위한 치떨리는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민족의 넋을 간직하고있고 겨레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의 위험천만한 북침생화학전책동을 준렬히 폭로단죄하고 그것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하지만 친미사대에 환장하고 동족압살에 미쳐버린 박근혜역적패당은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핵전쟁장비들은 물론 탄저균을 비롯한 각종 세균들까지 끌어들이며 생화학전준비책동을 공연히 감행하고있는데도 그것을 구구 비호두둔하면서 대국반역에 갈수록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생화학전을 감행할 경우 그 피해자는 우리 민족으로 될것이다. 더우기 지난해에 있은 탄저균반입사건이 보여준바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군이 벌리고있는 세균무기실험으로 인해 매일, 매 시각 불안과 공포속에 살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미제침략군의 생화학무기실험실설치책동을 단죄규탄하면서 그것을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패당은 인민들의 피타는 웨침에 귀를 틀어막고 미국상전의 북침생화학전책동에 적극 추종해나서고있다.

민족의 넋을 팔아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스스로 틀쓰는 박근혜역적패당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수치이고 망신이며 하루빨리 제거해야 할 재앙의 화근이다.

독립친미주구, 더러운 매국반역의 무리로서의 박근혜패당의 정체는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으며 매국과 반역에 열을 올리는 가증스러운 역적배들을 단호히 심판하고야말것이다.

최 진 향

동방의 핵강국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우리가 얼마전에 단행한 핵탄두폭발시험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선군조선의 전략적지위를 또다시 만방에 시위하였다. 외신들은 조선의 핵무기실전배비는 되돌려세울수 없고 미국이 조선에 압력을 가할수 있는 수단도 한계에 도달하였으므로 미국의 대조선전략은 명백히 실패하였다고 분석평가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겠다고 제재와 군사적압박 등에 집요하게 매달려온 미국으로서는 참으로 메사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되고말았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략적환경의 변화를 애써 외면하면서 단말마적발악을 하고있다.

지금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의 장쾌한 성공소식에 접한 미국은 추종세력들과 함께 상투적수법대로 있지도 않는 우리의 《도발》과 《위협》을 운운하며 부질없이 놀아대고있다.

한편 새로운 군사적도험에 매달리고있다. 오는 10월 조선서해와 남해에서 해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괴뢰들과 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우리는 변화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덤비는 적대세력들의 이러한 망동을 정신착란증에 걸려 수렁탕에 빠진 돈키호테무리들의 망녕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도발》이니, 《위협》이니 뭐니 하며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또다시 고리타분하게 걸고드는것은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행위이다.

우리가 적대세력의 위협행위에 자위적조치로 대응하는것은 유엔헌장에 명시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로서 그 누구의 시비거리로 될수 없다.

미국이 우리의 핵억제력강화때문에 조선반도와 세계평화가 파괴되고있는것처럼 떠들고있는데 그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강도적론리이다.

미국은 세계적인 핵전범자이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것을 처음으로 인류를 대상으로 사용한 핵전범자는 다름아닌 미국이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있는 미국은 그것도 성차지 않아 새로운 핵무기를 끊임없이 개발, 생산하며 그 현대화를 다그치고있다. 미국은 방대한 핵무기를 세계도처에 떠미해놓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위협공갈하고있다. 핵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는 미국때문에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다는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되여있다.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조치에 대해 문제시하기 전에 조선반도에서 지금까지 저들이 저지른 행위를 곰곰히 돌이켜보아야 한다.

미국은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한차례의 전쟁을 도발하고 핵무기사용을 시도하였으나 쓰디쓴 참패를 당하였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우리를 기어이 압살해보겠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비핵국가인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타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호시탐탐 침공기회만을 노려왔다.

우리 나라가 핵보유국이 된 이후 미국은 핵전쟁책동에 더욱 기승을 부렸다. 현 오바마행정부는 어리석게도 우리의 《붕괴설》까지 내돌리며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뻐하면 핵항공모함과 핵전략폭격기를 남조선과 그 주변에 들이밀고 우리의 종심에 대한 핵타격연습을 뻔질나게 벌리였다. 그것이 우리의 《제도붕괴》를 목적으로 한것이라는 것을 거리낌없이 공개하였다. 극악무도한 침략세력인 미국이 항시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가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미국이 우리에게 핵공갈을 가하는것만큼 우리는 미국의 핵패권에 맞설수 있는 실질적수단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다.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정하고 위협을 가해오는 조건에서 우리가 비한 대가를 치르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 능력강화에 힘을 넣어온것은 당연하다.

올해초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의 장엄한 뢰성은 방대한 각종 핵살인무기로 무장한 미국의 침략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위적권리로서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였다.

년대와 세기를 넘어 지속되여온 미국의 대조선핵위협공갈은 우리가 그 누구도 넘겨다볼수 없는, 수소탄까지 보유한 동방의 핵대국으로 되도록 떠밀어주었다. 우리의 핵보유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핵불균형상태가 깨여지고 새로운 구도가 형성됨으로써 지역에서는 전쟁이 억제되고 평화가 유지될수 있게 되였다. 우리의 핵보유때문에 조선반도와 세계평화가 파괴되고있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핵억제력강화로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세계평화와 안전이 담보되고있다는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오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수소탄까지 보유하고 핵보유국의 전렬에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바로 보지 못하고 동방의 핵대국을 어째보겠다고 실패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고집하는 미국에 있다.

대조선정책에서 진퇴량난의 처지에 빠져든 현 미행정부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협하려고 피를 물고 덤벼들고있다. 우리의 초강경대응에 얼혼이 나가 마지막도박에 매달리고있다. 우리의 자위적인 핵능력을 《초토화》해버리려고 《정밀공습작전》계획이라는 핵전쟁각본까지 짜놓고 이 땅에 무서운 핵재난을 들씌우려 하고있다. 녕변핵시설들과 원자력발전소건설장, 우라니움광산들과 농축시설 등을 공습목표로 선정하였으며 우리 전략군의 탄도미싸일들과 잠수함진조시설 등을 동시에 정밀공습하여 단번에 파괴할것을 예견하고있는 《정밀공습작전》이 필연코 전면전쟁으로 번져질것이라는것을 미국도 부인하지 못하고있다. 다시말하면 미국은 핵몽둥이를 휘둘러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응근 한차례의 대규모전쟁을 지금 당장 일으켜서라도 우리의 의지를 흔들고 단호한 결심을 꺾어보려는 흉악한 야망을 버리지 않고있다.

미국이 핵전략자산들까지 총발동하여 선제공격을 노리고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핵으로 대응할수밖에 없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이 전략자산들을 가지고 으쓱해하고있지만 그것은 정의의 핵억제력을 가진 상대앞에서는 무력한 법이다.

속담에 먼저 적의 힘을 안 다음 그와 싸움을 시작하라고 했다.

미국이 핵보유국의 전렬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가려보지 못하고 핵선제공격으로 우리를 어째보려 하는것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개꿈과 같다. 그것은 자멸을 촉진하는 길이다.

핵광신자들은 상대를 똑바로 보고 덤벼들어야 한다.

미제가 강요하는 핵전쟁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가 우리에게는 다 되여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 나라를 핵선제타격하겠다고 덤벼도 미국을 핵으로 무자비하게 보복타격할수 있다는것을 실물로써 확증해주었다. 선군조선의 위력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올해 봄에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때에 이미 과시되였다. 미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과 《붕괴》타령을 공공연히 줴치면서 대조선《제재결의》를 조작해낸데 이어 핵전쟁연습을 극히 모험적인 《작전계획 5015》에 준하여 실동적인 전쟁수행방식으로 강행하였다.

미제는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전략적핵심지대들을 선제타격하는데 중점을 두고 《6대전략자산》에 속한다고 하는 《B-52》전략폭격기니, 핵동력잠수함 《노스 캐롤라이나》호니, 핵항공모함 《스테니스》호니 하는것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의 하늘과 바다에 끌어들여 미친듯이 전쟁소동을 벌렸다. 하지만 핵보검을 억세게 틀어쥔 우리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우리는 가증스러운 원쑤들의 핵광란을 백두의 칼바람정신, 강위력한 선군총대로 호되게 답새김으로써 적들을 기절초풍, 혼비백산케 하였다.

우리 혁명무력은 무적필승의 총대의 위력으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최후발악, 전대미문의 살기등등한 침략전쟁광증을 통쾌하게 제압분쇄하였다. 만일 적들이 조금이라도 움찍했다면 자비와 용서를 모르는 우리의 무자비한 선제타격에 의해 백악관은 벌써 생명체를 찾아볼수 없이 재가루만 스산하게 날리는 황량한 무덤으로 변하였을것이다.

미국이 핵보유국인 우리 나라를 어째보겠다는것은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다.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하자, 이것이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를 족랑쳐버리고야 말 의지로 충만되여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심이고 배짱이다. 승리의 열쇠는 전쟁을 치르는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각오에 달려있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들며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백두산혁명강군의 불세례를 피할 곳은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다.

지난 1950년대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조선전쟁에서 래전강군의 오명을 쓴 전 《유엔군사령관》 맥아더는 《미국이 조선에서 승리를 얻으리라는것은 불가능한것이다. 우리는 참담한 손실을 받았다. 조선에서 흘리는 미국사람의 피는 더욱 많아지게 될것이다.》라고 비명을 올리였다.

미국이 핵전쟁계획인 《정밀공습작전》계획을 짜놓고 우리의 《보복공격씨나리오》와 저들이 당할 피해규모를 예측하는 놀음까지 벌려놓고있지만 우리식의 대응방식이 어떤것인지, 그 위력이 얼마나 큰것인지 미국은 상상조차 할수 없을것이다.

미국이 섬멸적타격을 피하는 길은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건드리지 않고 자중, 자숙하는것뿐이다.

리 현 도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승리만을 떨쳐온 존엄높은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베네수엘라, 벨가리아에서는 좌담회와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전람회가, 도이췰란드에서는 인터네트사진전시회가 9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전람회장정면에 모셔져있었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주체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베네수엘라 국제련대성 및 평화를 위한 투쟁위원회 집행서기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제투쟁에서 승리만을 떨쳐온 존엄높은 나라이다.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이 나라가 어떻게 외부의 지원도 없이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고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조선민족을 구원해주신분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무장투쟁으로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김일성주석이시다.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각하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김정은각하께서 빛나게 구현해가시는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승승장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세계는 다는 알지 못하고있다.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중의 하나는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체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주체사상의 위력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하였으며 오늘은 핵보유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로므니아조선친선협회 듬브비짜도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60년전 자기 도의 뜨르고비슈떼시를 방문하신데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고 그이의 방문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특기할 사변이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데 대하여 헐거하고 오늘 조선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강화되였다고 격찬하였다.

로므니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은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모시고 나아가는 조선인민은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나라를 만드시 일떠세울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칠 레 인 사

우리 나라 함경북도 북부피해지역에 대한 긴급지원 호소

조선과의 친선협회 칠레지부 대표 마누엘 아리스멘디가 우리 나라 함경북도 북부피해지역에 대한 긴급지원을 호소하였다.

그는 13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글에서 라틴아메리카와 유럽의 단체들과 인사들을 비롯한 세계의 진보적인 단체들과 인민들에게 해방후 최대의 자연재해를 입은 조선의 북변두만강연안 주민들에 대한 긴급지원에 나설것을 호소한다고 지적하였다.

지금 조선에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힘있는 지원속에 한지에 나앉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한 긴장한 피해복구전투가 진행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들을 적극 돕는것은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협조와 련대성의 표시이며 앞으로 자기 나라들에도 닥칠수 있는 어려가지 재해들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강조하였다.

겸손하고 진실한 조선사람들의 모습

싱가포르신문의 글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 11일부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한 판광객의 방문기를 두번에 걸쳐 게재하였다.

필자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역제》와 《고립》으로 알려져있는 조선에서 진실한 모습을 볼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거의나 없었다.

그러나 조선방문기간에 목격한 이 나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대단히 인상적이였다.

평양의 모란봉에서는 늙은이들이 춤을 추거나 운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건늠길에서 한 소년단원이 할머니의 손목을 잡고 안전하게 건네주고 싹붓이 인사를 하는 모습, 김일성광장과 개선문광장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남녀청춘들이 기쁨에 겨워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모습들은 매우 흥미있는 모습들이였다.

그는 평양의 지하철도와 거리들을 돌아본데 대한 자기의 소감을 상세히 서술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나는 조선방문의 마지막나날에 판문점을 참관하였다.

이곳에서 만난 한 인민군병사는 미국이 또다시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소멸해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조선방문을 통해 나는 겸손하고 진실한 조선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로 하여 나는 조선에 대한 더 좋은 추억을 가지게 되였다.

신문은 필자가 찍은 사진들을 함께 편집하였다.

한편 15일과 16일 로씨야의 인터네트통신 쁘레모르스끼 베쁘르표르와 인터네트신문 《브레마 뻬레뜨》이 자연박물관,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통라인민유원지 등 훌륭히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소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망조가 든 《법치국가》

어기에 《법치국가》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사법제도가 영망진창이라는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미국의 한 단체가 268건의 재판절차를 재검토한데 의하면 95%이상이 잘못 처리되였다고 한다. 주되는 원인은 미련방수사국과 사법성의 법의감정실이 검찰측에 유리한 감정결과를 조작하여 증언해온데 있다고 한다. 극도의 오판으로 하여 죄없는 32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헤이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한 선원은 더 무너없는 관짐로 33년동안이나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다. 무죄가 밝혀져 석방된 그의 나이는 올해 59살이다. 결국 그는 인생의 귀중한 청춘시절을 감옥에서 보낸셈이다. 비극은 돈과 권력에 아부하여 잘못처리된 수만건에 달하는 형사사건들에 비해볼 때 헤이워드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다.

보다 경악케 하는것은 미국에서 사법제도가 인권유린의 온상으로 되고있는것이다. 뉴욕시의 중심구역에서 경찰들의 무차별적인 사격으로 무방비상태의 한 흑인남성이 무려 50발의 총탄을 맞고 숨진 사실은 결코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이른바 사회안전을 도모한다는 경찰들이 흑인이라고 하여 온몸이 벌둥지가 되도록 총탄을 퍼붓고있는것은 미국사회에 지배하는 인간증오사상, 인종차별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백주에 경찰이 사람잡이를 하고서도 아무러한 법적처벌도 받지 않는것 또한 미국의 실상이다. 미국의 사법제도는 경찰제복을 입은 살인범들을 극력 보호해주고있다. 정부자체가 살인경찰들을 법정에 세우는것을 완강히 반대하고있다. 2013년 한해동안에만도 경찰에 의한 살인건수는 461건이나 되며 정부는 그에 대해 《직무집행중의 정당방위》로 옹호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미국에서 경찰과 사법기관들은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도 재산몰수라는 미명아래 저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있다. 그런가 하면 감옥간수들은 수감자들사이에 《고대로마의 격검식》격투를 붙여놓고는 말린다고 하면서 마구 총을 쏘아대며 변태적인 쾌락을 맛보고있다. 미국의 한 정치시사론평원은 미국은 220만명의 수감자를 가지고있는 감옥의 나라이다, 판리들은 죄수들의 형을 놓고 흥정하고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리윤을 챙기는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라고 폭로하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이라고 혹평하였다.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한다고 하는 사법제도가 이러할진대 어떻게 사회적안정이 도모되겠는가.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국민들의 자살률이 급증하고있다. 지난 15년동안에 자살률은 24%나 늘어났다. 국제적으로 매개 나라들의 자살률은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적라락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고있다. 미국에서 자살률이 늘어나고있는것은 사회제도의 불안정성과 부패성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최근시기 절대다수 미국민들속에서 미국이 력사적으로 제2의 분렬기에 접어들었다, 현재 미국의 분렬상황이 19세기 중엽 남북전쟁이 폭발하기 이전시기와 비슷하다라는 여론이 대두하고있는것은 그에 대한 또 다른 립증이다.

미국사회에 만무하는 무질서와 부패타락속에 성행하는것은 범죄이다. 황금의 노예로 전락된 수많은 사람들,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팬대로 쩐 남녀로소가 자기의 리익을 위해서는 그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잠찍한 범죄행위로 서슴없이 저지르고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범의법 명칭의 범죄조직들은 살판을 만난듯이 자기의 령역을 확대하고있으며 약육강식의 피터지는 싸움으로 미국사회는 더욱더 만신창이 되고있다.

국민이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한다. 정치도 법도 국민을 등진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악의 제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통채로 타락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본사기자 배 금 희

조선은 정의의 핵보검을 억세게 틀어쥔 불패의 강국

총파산된 미국의 대조선정책

스위스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주체조선의 핵탄두폭발시험성공에 당황망조한 나머지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미국을 규탄하여 2017년 때두산위인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1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탄두폭발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자마자 미국대통령은 악의에 찬 망발들을 마구 늘어놓았다. 오바마는 9일 발표한 《성명》이라는데서 이번 핵탄두폭발시험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걸고들었다. 또한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조선이 단행한 핵탄두폭발시험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핵전쟁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대응조치의 일환이다.

회임을 앞둔 오바마의 《성명》 발표놀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핵보유에로 떠민 책임을 회피하려는 속심이 깔려있다. 오바마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의 전략적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려드는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워보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짓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병진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고있다.

이번 핵탄두폭발시험도 병진로선관철의 한 공정일뿐이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총파산되였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자!

베 네 수 엘 라 인 사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여 베네수엘라 국제련대성 및 평화를 위한 투쟁위원회 집행서기 로쏘 그리마우가 13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살고있는 행성의 도처에서 미국의 국가테로행위로 인류가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자기 힘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발전을 이룩하는것이야말로 주권국가의 당당한 권리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면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에서 성공한것을 비롯하여 정의로운 반제투쟁에서 승리만을 떨치고있는 조선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사회주의길로 굴함없이 꿋꿋이 걸어가면서 도발자들의 온갖 핵위협에 당당히 맞서싸우는 조선의 당과 군대, 인민에게서 많은것을 배워야 할것이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사회주의조선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브라질단체 글 게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가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이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조치라는데 대하여 주장하는 글을 19일 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와 신문 《아구아 베르데》에 각각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번 핵탄두폭발시험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적조치의 일환이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조선을 핵무기로 끊임없이 위협하여왔다. 이미 지난 조선전쟁때 조선에 핵위협을 가했던 미국은 전후 남조선에 1000여기의 핵무기를 끌어들였으며 해마다 북침핵전쟁연습을 강행하여왔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는 비핵국가였던 조선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공식 지정하였다.

핵공격을 막을수 있는 가장 믿음직하고 유일한 방도는 무엇인가?

그것이 핵보유라는데 대하여서는 누구나 잘 알고있다.

그래서 조선은 2005년 2월 외무성 성명을 통하여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조선은 핵억제력을 가지게 되였다는것을 공식 선언하게 되였던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핵위협에 계속 매달렸다.

조선은 2006년 10월에 이어 2009년 5월과 2013년 2월 지하핵시험을 단행하여 자기의 핵보유를 실증하였다.

조선이 평화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는데 류의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조선은 미국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성있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추종세력들을 규합하여 형형색색의 대조선경제제재와 모략적인 《인권》소동에 매달리는 한편 《키 리졸브》,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핵전쟁연습들을 대대적으로 벌려놓으면서 조선을 기어이 압살해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미국의 가증되는 핵공갈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조선이 올해 1월 첫 수소탄시험을 성공시킨데 이어 이번에 핵탄두폭발시험을 단행한것이다.

이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주적권리이며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로서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체육인들의 항거를 통해 본 인종차별왕국의 진면모

얼마전 미국의 한 체육인이 경기장에서 국가가 울릴 때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일이 벌어졌다.

그의 이름은 콜린 캐퍼니크, 직업은 축구선수이다. 며칠후에 진행된 경기때에도 그는 무릎을 꿇는것과 같은 류별난 자세를 취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지금 미국사회에서 커다란 론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일반적으로 체육경기나 행사를 시작할 때 국가를 연주하는데 이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는것은 하나의 관례로 되여있다. 그것이 곧 나라에 대한 경의의 표시,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의무로 되기때문이다. 이것을 거부한다는것은 국가에 대한 일종의 항거와도 같은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미국에 대해 그처럼 《불손한 태도》를 취하게 하였는가.

사건발생후 그는 사람들에게 떳떳이 말하였다.

《나는 경찰의 권력람용과 인종차별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에 나섰다.》

계속하여 그는 자기의 행동이 미국사회의 악성종양인 인종차별문제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침묵시위를 계속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알려진데 의하면 그는 흑인아버지와 백인어머니사이에서 태여난 혼혈인이며 어릴 때 백인가정에 양아들로 들어갔다고 한다.

모든것이 명백하다. 그자신이 어릴 때부터 백인으로 태여나지 못한 죄 아닌 《죄》로 하여 당해야만 했던 설움, 날이 갈수록 유색인종들에 대한 탄압과 학대, 차별대우가 더욱 우심해지고있는 불평등한 미국사회에 대한 불만이 분노로 폭발하여 자기나름대로의 항의시위를 벌리도록 하였던것이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헤아릴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인종차별행위에 항거하여왔다. 그가운데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체육인들도 적지 않다.

한때 권투왕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권투선수 무함마드 알리는 백인들만 봉사하는 한 식당이 그에 대한 봉사를 거절하자 로마올림픽경기대회에서 쟁취하였던 금메달을 오하이오강에 던져버리고말았다. 비록 그가 나라를 대표하여 출전하였던 올림픽우승자라고 할지라도 피부색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는 썩어빠진 미국사회의 참혹한 현실에 울분을 금할수가 없었던것이다.

1968년 메히꼬올림픽경기대회때에는 두 흑인선수가 시상대에서 머리를 숙이고 검은 장갑을 낀 주먹을 높이 쳐드는 특이한 행동으로 미국의 반동적인 인종주의정책에 항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즉시에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미국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켰다.

미국의 흑인체육선수 비먼도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너비뛰기종목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워 세계강자로 되였지만 자기를 축하하는 사람들앞에서 기쁨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인종차별제도에 대한 울분을 터치였다.

그들이 꿈속에서도 바라던 평등은 오늘까지도 이룩되지 못하고있다. 나아지기는커녕 미국사회의 고질적병집인 인종간 불평등상황은 더욱 극단에로 치닫고있다.

미국의 뿌리깊은 인종차별제도하에서 오늘 유색인들은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인간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하고있다. 미국에서 유색인들의 실업률과 빈궁률은 백인들에 비할바없이 높으며 해마다 8만 4 000여명의 흑인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있다. 흑인녀성들속에서 산모사망률은 백인녀성들에 비해 4배나 더 높다고 한다.

범죄행에서의 인종차별행위들도 역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미국에서 마약관련범죄로 체포된 흑인남성들의 수감기일이 백인남성들에 비해 11.8배나 더 길며 흑인녀성들이 백인녀성들보다 감옥에 잡혀들어가는 비률은 4.8배 더 높다고 밝혔다. 백인을 죽인 흑인은 100% 중형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는 반면에 흑인을 죽인 백인은 40%정도만 중형을 선고받고있다.

특히 주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들이 무고한 흑인들을 짐승사냥하듯 마구 죽이고있는것이 만사람의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얼마전에도 백인경찰들은 《정당방위》, 《공무집행중》이였다는 황당한 구실을 내걸고 백주에 무고한 흑인청년들에게 무차별적인 총탄세례를 안기였다. 그런데도 미국의 정계와 사법계는 이를 못 본체 하며 범죄자들을 비호두둔하고있다.

인종문제해결전망이 얼마나 암담했으면 미국력사상 첫 흑인대통령으로 된 오바마까지도 흑인문제는 《미국사회와 력사에 깊숙이 뿌리내린 문제》라고 개탄하였겠는가.

현시대의 가장 극악한 인종주의국가, 인종차별의 왕국, 바로 이것이 미국의 진면모이다. 미국의 지배층이 《자유》와 《평등》, 《인권옹호》의 기만적인 구호들을 웨쳐대며 자기의 추악한 실상을 감추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짓에 불과하다.

오늘 미국사회전반에 만연하고있는 극심한 인종차별로 인하여 인종간 갈등과 대립은 날로 첨예화되고있다. 전국도처에서 당국의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반인종주의시위들이 련일 진행되고있으며 이를 지지하여 시위들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고있다.

이번에 단행한 캐퍼니크의 침묵시위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캐퍼니크의 이름이 새겨진 운동복판매량이 크게 늘어나고있는데 이것은 그의 행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터네트에 캐퍼니크를 지지하는 글들이 오르고있으며 많은 선수들이 침묵시위에 합세하고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들에서 세상사람들은 듣고있다. 사람의 인격이 피부색에 따라 결정되는 부패한 미국사회를 저주한다는, 반인민적이며 반인륜적인 악의 제국 미국의 인종차별제도를 뒤엎어 없애야 한다는 그들의 마음속웨침을.

본사기자 안 철 권

7-61155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